

e-세상에서 '불교문화' 자리잡다

목아박물관 매달 새작품 '입력' 원성스님 '풍경' 사이버 전시 능화스님 무용 '보고 또 보고'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가 이미 400만 명을 넘어섰다.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부상한 인터넷 속에는 사이버박물관, 사이버미술관, 사이버영화관, 사이버방송국 등 없는 게 없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교계도 이미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문화예술분야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이버문화공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아직은 개인 홈페이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불교문화를 볼수록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전달하고, 특히 젊은층과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로서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불교목공예품의 진수를 보여주는 박찬수 씨의 목아박물관www.mokaj.com은 매월 15일 새 작품을 갤러리에 선보이며, 사이버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동승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에까지 널리 알려진 원성스님 www.pungjung.com은 풍경

이라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전시를 물론 관람객과 대화도 나눈다. 불교서각가가 해안스님www.haean.com도 사이버공간에서 전통 서각과 선화화, 단청문양 등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불교전통무용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능화스님의 불교무용www.buddhistdancing.com, 불교음악계의 소식과 새 찬불가 앨범 등을 소개하는 부디스트뮤직www.buddhistmusic.com사이트 등도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사이버문화공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 모여든 네티즌들을 실제 문화의 현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온라인에 모여든 네티즌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개별

공간이 부족하다. 전시나 공연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유명 화랑 가운데 하나인 금호갤러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에게 상세한 전시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시를 여는 등의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이 직접 미술관을 찾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가나아트센터, 국립민속박물관, 예술품 전당 등 국내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이미 이같은 방법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다. 사이버 문화가 인간 중심적 문화의 가치를 압살할 것이라는 사회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사이버 문화 공간을 통해 새로운 문화유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문화공간의 활성화가 직접적인 불교문화 수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 수준을 넘어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네티즌들을 실제 문화 공간으로 이끌어내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은자 기자(jee@buddhapa.com)



목아박물관장인 박찬수 씨의 웹사이트



영산재보존회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사이트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그리스를 다녀왔다. 인간의 최고의 작품은 자기 자신이다. 란 명제 아래 스스로 이상적인 인물이 되도록 연마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건설해 놓은 찬란한 문명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고대에서 현대를 관통하는 그리스적 이상은 '자유로운 인간'이다. 그 이상이 끊이지 않고 내려와 현대 그리스의 대표적 작가인 카잔차키스(1885-1970)로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즐거웠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적 자유를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승화시켰는데, 흥미롭게도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불교였다. 그는 자신에게 구원의 빛을 던져준 것은 부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푸르다 못해 궁정색으로 빛나는 에게해가 멀리 바라보이는 크레타 섬의 언덕 위에 카잔차키스의 묘가 있었다. 그 흔한 대리석 하나 없는 소박한 돌무덤 앞에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파문 당한 상징인 나무십자가가 외로이 서 있었다. 카잔차키스가 추구한 자유는 그리스의 국교인 원교한 정교회의 교리가 응답하는 도덕적인 선을 훨씬 뛰어넘었던 것이다. 그의 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묘비명이었다.

카잔차키스의 조르바

최후의 걸림돌인 자유마저 초월 마침내 해탈로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나는 결림이 없다.

카잔차키스는 '책벌레 형 인간'이다. 그런 그가 찾아낸 가장 이상적인 자유인은 세상의 온갖 모든 일을 하며 떠도는 야생마 같은 실존인물이었던 조르바였다. '삶의 길잡이'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택했을 것이다. 주된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책으로부터 떨어뜨린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 달 사이에 조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따져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쓰라린 마음을 견디지 못했다. '영혼의 자서전'

조르바로부터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배운 그는 생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위와 같이 적어 놓고 갔다. 서양적인 자유가 아니라 불교적인 해탈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 내용은 불교의 핵심인 고집멸도(苦集滅道)와 일치한다. 지식인인 그는 평생 고뇌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바람처럼 떠돌던 무애인 조르바를 만났으므로 자신의 고뇌의 원인이 집착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집착의 원인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유의 최대의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자유의 핵심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는 반야심경의 키워드인 '무유공포(無有恐怖)'를 이해한 것 같다.

확실히 문수보다 보현이 한 수 위인 것인가? 문수 카잔차키스는 보현 조르바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리스적 자유는 최후의 걸림돌이었던 자유 그 자체마저도 초월하여 마침내 해탈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업에 실패하고도 오히려 그 쓰라린 경험을 한바탕 춤으로 승화시킨 그리스의 원로 조르바 영화 '회합인 조르바'에서 안소니 퀸이 야생마처럼 활활 뛰어 춤추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

■문학평론가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신경림 씨 소설-한승원 씨 평론-홍기삼 씨



신경림 씨



한승원 씨



홍기삼 씨

대한불교조계종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신경림 씨, 소설 부문에 한승원 씨, 평론 부문에 홍기삼 씨가 선정됐다.

1966년 <문학예술>로 등단한 이후 우리 문단의 대표적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경림씨는 지난해 가을 발표한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에서 평범한 시어들을 통해 불

교적 직관을 펼쳐낸 점을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중견 소설가인 한승원씨는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인연과 업, 우주적 존재 원리를 탐구해 간 장편소설(사랑)으로, 홍기삼씨는 평론(불교문학의 두 방향)으로 불교문학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1996년 제정된 현대불교문학상은 지금까지 시 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시, 소설, 평론 등 3개 부문으로 범위를 넓히고, 상금도 5백만원으로 늘렸다.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 수완스님은 "조계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 소설, 평론 뿐 아니라 시조, 희곡, 아동문학 등 수상 장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침체된 불교문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 불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자들의 작품은 <불교문학> 봄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은자 기자

국악 FM방송 3월 개국

국악 FM방송이 3월 2일 개국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내에 자리잡은 국악 FM방송국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는 국악 전문 채널. 주파수 FM 99.1MHz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청취할 수 있다. 시험방송 기간에는 오전 6시~밤 12시까지 정악과

문학소식

산조, 민요 및 국악동요, 창작음악, 판소리를 해설없이 음악만 방송한다.

국악 FM방송 채지성 편성제작총괄 팀장은 "단순히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활문화 전반을 폭넓게 다루어 전통문화의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댄스그룹 '무사' 첫 공연

한국 춤의 맥을 잇는 3명의 젊은 무용수로 구성된 'MUSA(舞邪)'가 22일 서울 청담동 성원센터 3층 홀에서 창단공연 'Promis'를 갖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정재만류승무 전수자인 정용진씨(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를 비롯, 이재성, 변지훈(상명대)으로 구성된 무사는 이번 공연에서 사물과 록 발라드 음악을 혼합 조화시킨다. 02516-1540

만다라 불교예술전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제3회 만다라 불교예술 정기전이 15일~3월 8일까지 서울 롯데월드 쇼핑몰 3층 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만다라예술관과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 전시에는 한국 티베트 중국의 만다라 및 탱화 100여점과 부처님 진신사리 및 천연수정 사리함 10점, 한국 티베트의 불상 10점 등 독특한 불교예술품들이 선보인다. 또 행사장에서 달마그림과 행위선무 시연도 이뤄진다. 02732-6373



전시

김양수 퓨전미술전

21~27일 덕원미술관

수묵화의 절제와 여백의 미로 선정의 세계를 펼쳐 왔던 중앙화가 김양수씨가 21일~27일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불에서 푸는 꿈'을 주제로 전시를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유화와 조각의 테크닉까지 집목시킨 독특한 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의 자유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흔히 퓨전 미술이라고 불리는 김씨의 작품은 이미 지난해 말 중국 북경국제현대미술관에서 선보여 중국 화단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02723-7771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2001학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구분	요일	과목	교수	내용	방법(모집인원)
1	월요일	법학개론	박종 (동산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보살시현의 원력을 강의(관세음보살론)	정규반(50명)
	화요일	화엄경	한정섭 (금강선원이사장)	부처님이 경각을 이루는 보리살의 경의(세주보살론, 약전제, 법성제)	통신반(30명)
* 경전개설과목 : ○ 법화경 방한론, 법화경 여래수행론, 법화경 관세음보살론, ○ 화엄경 약전제, 법성제, 화엄경 십지품, 화엄경 입법계품, 화엄경 보행원품 ○ 금강경, 무량수경, 대승불교, 보살론등 강좌					
2	목요일	이항경의 천명	최봉수(동국대)	이항경,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을 관통하는 근본교설 강의	정규반,통신반(40명)
구분	방법	교수	내용		방법(모집인원)
3	통신강좌	송찬우(송가대)	반야심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육미경, 조론, 능엄경을 송찬우교수의 명쾌한 강의로 통신 수강		통신반(30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1 불교대학(정규)이수자 2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3 과목별 이수 희망자	1 입학원서서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반명함판서진 3매 4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5 자기소개서 1통	2001년 2월 1일~ 2001년 3월 3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 1. 개강일시**
 - 1 정규반 : 2001년 3월 5일 (월) 오후 7시
 - 2 근본불교반 : 2001년 3월 8일(목) 오후 4시
- 2. 입학금** : 일십만원
- 3.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 4. 원서문의 교부**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 02)732-1206~8 / FAX 02)732-1207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1. 교과목

- 1학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경도사상·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금강사상·보살론
- 2학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의처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지역중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2001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 (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원양성	
개강일시 : 2001년 3월 3일 (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서시 또는 영현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 의식 · 승주 정엄염불	· 백일·돌·생일 의식과 결혼 의식 · 장례 의식 (1) 일반의식 · 장례 의식 (2) 임종·매장·회장의식 · 재공 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1년)	1 한국국외의식 희망자	1 입학원서서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반명함판서진 3매	2001년 2월 1일(목)~ 2001년 3월 3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3시 (통신법당)
연구반 30명(1년)	2 포교당 운영자	4 반명함판서진 3매	*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함.	

3. 입학금

5. 원서 교부·접수

02)732-1206-8 / FAX 732-1207 (10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

4. 특 전

- 일십만원
- 본 연구원 사무국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홈페이지 - http : www.dongsanbud.org